



우수 여왕벌 양봉농가 보급 (7월부터 예정)



지난4월4일 대전아드리아 호텔에서는 전기현 회장, 우건석 명예교수, 차용호 박사, 사무총장, 3개 시험농가와 함께 여왕벌 보급사업에 관해 실무 회의를 개최했다.

본 협회에서는 2006년도부터 시행한 국내 우수 여왕벌 선발 보급 3년차 사업이 금년 7월부터 양봉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.

평가단에서는 1차 국내에서 선발된 여왕벌과 그 간 평가단에서 보유한 여왕벌을 선발(산란, 질병, 수밀능력 등)하여 양봉농가들에게 보급한다. 본 협회에서는 순수 국내산 여왕벌을 선발하게 된 이유는 현재 국내에 수입 벌이 들어오지 못한 상황에서 실험용 여왕벌을 도입하게 된다면 수입 벌을 개방하는 것과도 같으므로 순수 국내산 여왕벌을 선발하게 되었다.

최근 시·군 단위별 밀수품 여왕벌을 도입하여 양봉농가들에게 판매 및 보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는 우리 양봉농가들에게 큰 피해를

줄 수 있다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. 좋은 뜻에서 보면 우수한 여왕벌을 농가에 보급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, 검증되지 않는 여왕벌을 밀수품으로 반입하여 국내에 발생하지 않는 질병이 발생 할 경우 결국 우리 양봉농가만이 큰 피해를 볼 것이다.

지난 뉴질랜드 딱정벌레 질병발생으로 국내 수입 벌 전면 반입조치 한 사례 등을 고려 할 때 밀수품 반입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.

또한 시·군 단위 보조사업으로 밀수품을 도입하여 양봉농가들에게 보급하다 세관에 적발되어 관계공무원과 해당자까지 문책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.